

직장생활이 모유수유를 막는 장애물이라고요?①

〈편집실〉

“간 호사님, 젖을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하
죠?”

전화목소리 사이로 흐느낌이 느껴지
는 것으로 보아 심상치 않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
다.

“대리님, 잠시 기다려요. 점심시
간에 제가 갈게요.”

전화를 받고, 오전시간
내내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 중이었다.

‘왜 젖을 말리려는
것일까?’

점심을 부랴부랴 먹고
그 직원 집으로 달려간 나
는 문을 열어주는 대리의 모습
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
굴은 벌겋게 상기되고 머리에는 구슬땀이 맺
혀있고... 젖몸살이 심한 상태였다.

이유는 함몰유두였다. 퉁퉁 부은 가슴을 아기는
전혀 빨 수가 없었고 물기만 하면 속 들어가 버리
는 유두로 출산 후 일주일 쯤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도착하기 전 이미 젖을 말리는 약을
먹었다며 그 동안의 고생담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분명히 임신 5개월 때 모유수유 교육을
시켰고 그 때 유두가 건강하고 마른 모양인지 확인
을 했던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진정한 의미의 함몰유두는
일반적으로 보는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없다는, 어
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임신 5개월 1차 모유수유 교육
때면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유륜을 꼭 쥐었
을 때 유두가 함몰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

임상에서의 경험과 학부에서 배운 지식의 한
계는 이렇게 나를 당황하게 했다. 한
동안 모유수유 교육이라면 기
를 쓰고 찾아다녔다. 좀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
육을 위해 경험만큼 좋
은 스승은 없었기에 이
런 사례들을 열심히 모
아서 적어 놓기도 했다.

나의 무지한 교육으로
(?) 모유수유를 포기할 수 밖
에 없었던 그 대리를 볼 때면 지금
도 미안하고 안쓰럽다. 난 그녀를 볼 때면,
“둘째 때에는 내가 확실히 도와줄게요.”라고 다짐해
준다.

난 올해로 4년째 임신부들을 교육하고 있다. 건
강관리실에서 임신부를 관리하는 일은 업무의 일부
분이지만 사실 난 이 일이 제일 보람있고 이 일을
시작하고 배우게 된 것을 늘 감사한다. 특히 모유수
유를 교육하면서 만난 열성적인 엄마들, 그리고 그
의 건강한 아이들은 아마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

임상에서의 경험만 갖고 주식회사 이랜드 의무
실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모자보건에 큰 관
심은 없었다.

하지만 여직원이 과반수를 넘고 또 이들이 20대



중·후반을 지나가는 가임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업무 부담이 커가고 있었다.

임산부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면서 이들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모유수유와 라마즈 교육을 그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들게 된 모유수유 전문가 교육은 모유수유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갖게 했다.

임신 5개월이면 1차 교육을, 임신 9개월에는 2차 교육을 실시했다.

1차 교육에는 모유의 장점과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때의 교육은 나머지 임신 기간동안 모유수유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유방이 5개월동안 충분히 준비되도록 하는 마사지법을 시범하고 유두의 모양과 형태 등을 사정하도록 했다.

이때쯤이면 벌써, ‘모유수유’라는 말만 들어도 귀를 쫑긋 세우는 다부진 임산부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요.’하는 식의 나태한(?) 임산부로 구분이 된다.

이런 태도는 출산 후 모유수유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2차 ‘모유수유의 실제’교육보다 이 1차 교육을 할 때 더 흥분하여 침을 튀기면서 교육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미국의 모유수유율은 얼마이고 유럽은 어떻고 주로 후진국은 어떻고...’만 듣고도 “정말요? 미국이 그렇단 말이죠? 정말 의외네요.

미제 분유가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미국 사람들이 모유를 그렇게 많이 먹인다고요?”하며 놀라는 산모가 태반이고 이쯤되면 교육을 시키는 나도 신이 나기 시작한다.

하여튼 의료진인 나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무지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물론 배울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되어있지 않고, 더군다나 같은 여성으로 치자면 선배인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들까지도 분유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무지한 것이 당연하구나’하는 체념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교육은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의 변화는 직장 모유수유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 나라 엄마의 아이를 향한 극성은 모유수유에서도 나타나서 모유를 먹이려고 정말 눈물겹도록 씨름을 하는 직원들도 많다.

“간호사님! 너무 속상해서 전화했어요.”

출산한 지 일주일 된 직원이 불멘 소리로 전화를 했다. 이 직원도 모유수유를 꼭 하리라는 의지에 불탄 나머지 출산까지 젓병도 하나 사지 않고 순가락으로 보리차를 떠 먹이며 아이와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참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이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냐!”며 호통을 치는 바람에 남편이 한밤중에 나가 젓병과 분유를 사와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분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 직원도 초기 모유수유에 실패해서 2개월 겨우 먹인 정도에 그쳤다.

물론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 병원과 산후조리원으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현실도 한탄스러웠다.

요즘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끼리 잘못된 정보까지 나눠갖고는 잘 하고 있는 직원의 의욕까지 꺾어 놓은 일도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본난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엄마젖이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수기 부문 새누리상에 입상한 정주원씨의 작품입니다.